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종교는 완성됩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고로,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바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종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실망을 한다든지 낙심을 한다든지 절망을 하면 그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건강해야, 마음이 항상 활발한 가운데 움직여야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 영생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지, 영생의 마음을 안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영생의 길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향해서 나간다면, 항상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며, 항상 실망과 낙심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항상 희망 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을 가져야 몸이 건강하고 병에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병이라는 것은 마음이 실망한다든지 절망을 한다든지 낙심을 할 때에 피가 썩어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 사람이 늘 말하는 것은,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영생하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영생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세주 조희상님

속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신인 합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간직을 하여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고,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바뀌게 되는 고로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이고, 희생적인 마음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인 고로,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속에 내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에 천국이 있고 천국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우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 것이므로, 나와 내가 없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나로 만들 때에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내가 있어도 안 되고 다른 존재가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속에 천국이 있는 고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은 나와 내가 없어지고 하나가 될 때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의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면 영원무궁토록 존재하게 되어 있고 틀이 있으면 영원무궁토록 존재할 수 없어 영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기를 써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체계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내 자식이 나오, 내가 자식이요, 가족이 나오, 내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의 천국이 되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갈기갈기 찢개진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 만들기 위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는 곳이 승리제단이고, 승리제단에서는 나를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나를 이기면 내가 소멸되어버리고 나라는 것이 없어지므로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속에 영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속

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신이 거처하지 못할 때에, 사랑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씀대로 실생활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정상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구원' 이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가 되고, 천국 안에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고로 천국 안에 우리가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종교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몰랐다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긴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사람 속에서는 이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긴자가 되어 하나님이 마귀를 소멸해버리는 고로 마귀를 이긴, 사랑을 이긴 영생의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인 고로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속에나 있는 것이지 마귀를 못 이긴 하나님 속에는 영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 2월 2일 말씀 중에서

영모님의 숨은 뜻은 이긴자를 배출하는 것



군인의 신분으로 온양 제단 전도사 교역을 맡고 날로 식구들이 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뼈골 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충성심으로 신앙에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에서 예배를 보면 뽀얀 이슬이 자욱하게 내려 제단 바다에 물이 흥건할 정도였고, 병에 걸린 환자가 때때로 구름처럼 영적 안찰을 받기도 했으며, 제단 안에는 향취가 진동할 정도였다. 한 사람의 역할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경이로운 그것이었다.

그렇게 온양 전도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다 보니 영모님이 "이제 단에 그만 서, 계속 단에 서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조 중위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울 거야!" 하시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수많은 전도사들이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못하는 데 왜 단에 못 서게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기는 했지만, 영모님의 말씀이므로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온양 일대에 은혜자로 소문이 나 있기에 온양 전도사를 그만둔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꽤 버텼다. 하지만 영모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 이상 모든 조건과 상황이 온양 전도관 전도사를 그만 두게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서 영모님께서 단 물이 계속 때, 은밀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 중위는 안찰 안 받아도 돼." 하시며 안찰도 안 해주시는 것이었다.

자존심과 교만심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이러한 숨은 내막을 모르는 전도관 식구들로부터는 집회 때마다 다 안찰

손을 대시지 않아도 은혜를 부어 주시는 영적 안찰을 해 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동으로 물을 붓는 것같이 시원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모님께서서는 겉으로는 다른 전도사들을 보고 "전도사, 요즘 전도 잘되 나?" 하는 식으로 탄전을 부리시듯 하다가 안찰이 다됐다 싶으면 눈짓으로 대기 중인 안내원에게 마치 안찰을 안 해주며 끌어내 듯 고갯짓을 하며 들어내라는 신호를 하시는 것이었다.

해 주시는데 유독 이 사람만 안찰을 안 해주시는 관계로 마귀라는 소리를 듣기에 이르렀다.

영모님이 단에 서시는 전도관 곳곳마다 신도들이 안찰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 이 사람이 그 대열에 끼어 서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사람을 힐끔힐끔 보시면서 "안찰 안 받아도 되는데..." 하시면서 혼자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이 사람만이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도 안찰 받은 습관이

있는 고로 영모님 앞에 점점 나아가, 드디어 차례가 되어 영모님 앞에 누우면 손을 대시지 않아도 은혜를 부어 주시는 영적 안찰을 해 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동으로 물을 붓는 것같이 시원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모님께서서는 겉으로는 다른 전도사들을 보고 "전도사, 요즘 전도 잘되 나?" 하는 식으로 겉으로 탄전을

부리시듯 하다가 안찰이 다됐다 싶으면 눈짓으로 대기 중인 안내원에게 마치 안찰을 안 해주며 끌어내 듯 고갯짓을 하며 들어내라는 신호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두세 명의 건강한 안내원이 이 사람을 질질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명색에 육군 중위 계급장이 붙은 장교복을 입은 채 얼굴이 빨개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도 또 다른 집회 장소에 가게 되면 또 끌려나오게

되고 하였다. 그래도 또 가서 끌려나가는 것을 거듭하다 보니, 이후부터는 이 사람을 아는 전도관 식구나 교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 중위는 얼굴에 첩판을 깔았다."는 비아냥거림과 조소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손으로 안찰을 안 해 주시기를 3년이나 계속하시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마귀라서 안찰을 안 해 주시는 것같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관 교인들로부터 마귀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헤아려 보아도 진짜 마귀라면 안찰 받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대열에 끼일 수도 없으며, 끼여 있더라도 영모님 가까이 가게 되면, 즉각 영모님께 세례가 가는 고로 "저 마귀에게 당장 끄집어 내!" 하시며 끌려 나가게 되어 있는 것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도관 식구들 간에 이 사

람이 마귀라서 영모님이 안찰을 안 해 주신다는 소문이 날리 퍼져버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조롱과 꾀박과 천대를 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이 사람에게 직접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고 여러모로 신세를 졌던 사람까지 길거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오늘은 마귀 새끼를 보게 되어서 기분 잡쳤다." 하며 팽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가는 것이

고 나약한 형제를 시켜, '나' 라는 것이 원수 중의 원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 라고 하는 자존심 마귀를 뿌리째 뽑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이 사람이

꼭 참고 참았던 것이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영등포 당산동 지관에 다녔을 때, 나중에 소사 신앙촌 천부장이 되었던 한영순 권사를 전도한 일이 있었다. 그 아들 김영수도 군입대할 때 이 사람이 힘써서 카투사로 추천해 주었으며, 의사인 남평 김 선생이 영등포에서 고려 엑스레이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피의 원리를 논하며 전도까지 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한 그 한영순 권사는 소사 신앙촌 C5동 4호실에 있는 이 사람 집을 찾아와 "천부장 권한으로 명하니 조 중위 마귀는 나가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인간적 친분 관계와 정리를 봐도 그리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설움과 흠대 속에서도 영모님이 하늘의 사랑임을 너무나 확실히 알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앙촌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탄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다.*